

#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권리 공유의 양면성

자녀방문권을 법으로 제재하는 유일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아 오히려 부모와의 접촉이 자녀의 안전에 해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혼을 티부시하는 인식과 습성을 지니고 있다. 지식 때문에, 사회통념 때문에, 주변 친지 때문에 법적 이혼만큼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 의뢰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얼굴 더 이상 꿈속에서라도 볼까 무섭다'라는 단계에 달하면, 이혼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이혼이 완결된 이후에도 꿈이 아닌 현실에서 서로 얼굴을 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그것이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이 말하는 부모의 자녀 방문 권리(Visitation Right)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부모가 별거, 이혼을 한 이후에도 양쪽 부모가 자녀와 지속적인 접촉과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녀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Non-Custodial Parent)의 자녀방문 권리를 철저히 규정, 보호하고 있다. 만일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고의적으로 자녀방문권을 훼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원은 자녀양육권을 박탈,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어른들의 부부관계의 종말과는 상관없이 양쪽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실생활에서 체험하며 자라는 것이 자녀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법으로 명시된 한 예이다. 이러한 자녀방문권을 법으로 제재하는 유일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아 오히려 부모와의 접촉이 자녀의 안전에 해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이다.

3살짜리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하는 엄마 의뢰인이 있었다. 이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은 아빠가 아이를 너무 학대해서 아이가 아빠공포증에 걸렸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져서 아빠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이도 아빠가 자꾸 때려서 무섭다며 엄마에게서 떨어지길 않으려 했다. 이러한 상황 설명을 법원에 상세히 진술했고, 법원은 그 진술의 근거를 인



신혜원(가정법전문 변호사)

정해 Supervised Visitation이란 명령을 내렸다(Supervised Visitation이란 아동 학대의 전례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우려될 때 자녀 방문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 혹은 제3자의 입회,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제한된 형태의 Visitation을 말함).

이에 아빠는 자녀 학대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역정을 냈으나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판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이

런 식의 Supervised Visitation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그동안의 방문을 입회, 감독한 전문 감독관의 보고서도 제출됐다.

판사가 보고서를 소리 없이 읽어내리는 동안 엄마의 얼굴에는 아예 방문이 중지되거나 Supervised Visitation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 날 이후로 Supervised Visitation의 명령을 해제, 아빠가 감독관 없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

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다. 원숭이 우리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원숭이 몇 마리가 사나운 소리를 내며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이 소리에 놀란 아이가 반사적으로 아빠! 하고 외치며 아빠에게로 달려가 목에 매달렸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고 말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때 달려가 매달린 사람은 아빠입니다. 아이의 원초적인 반응에서 아이의 기본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나쁜 남편이었더라도, 당신이 걱정하는 것만큼 나쁜 아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아빠도 다시는 아이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낄 때 아빠라고 외치며 아빠에게 달려가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지극히 평범한 것이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소중한다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마음을 비우고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다. ㉔

문의 213-251-5401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적 인물 및 상황이 설정, 사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